

요충감염실태

한국 어린이



최 원 영

근년에 장내기생충의 감염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일부에서는 기생충 집단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그동안 학생검변검사를 봄과 가을에 걸쳐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대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및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년 1회 실시하는 차등관리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1987년 학생기생충검사 통계에 따르면 회충란은 0.8%, 편충란은 0.8%의 양성율을 나타냈으며, 요충란은 800만명의 검사자중 629명만이 양성자로 0.008%의 양성율로 보고되었다. 이 성적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학생의 요충감염은 거의 없다고 할 수있겠으나, 이 성적으로는 요충감염을 논의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조사가 분변검사에 의한 것이고 요충검사는 분변검사가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요충은 암놈이 신란을 장관내에서 하지않고 야간에 항문 주위에다 산란하므로 분변내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검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충검사를 위해서는 항문주위에서 충란을 채취해야 하며, 그것도 아침일찍 배변전에 검사해야 하고 수회 반복검사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요충감염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1962년에 주와 임이 부산 지방 아동에 대하여 Graham씨법으로 조사한바 160명에 대한 반복검사에서 41.9~52.9%의 충란검출율을 보였는데 4회까지 반복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중 남자는 41.1%, 여자



'87년 학생기생충
검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요충
감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조사는 분변검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요충감염을 논할 수가
없다.

는 54.6%로 여자에서 양성율이 높았다. 1963년에 서와 임은 서울시내의 고아원생 671명, 유치원원아 168명, 국민학교 아동 573명, 지방국민학교 아동 833명 그리고 기타주민 416명 총 2,689명에 대하여 검사하였는바 남자가 27.5%, 여자가 38.3%의 양성율을 나타내어 총감염율은 31.7%이었다고 하였다.

집단별로는 고아원원아가 44.9%로 가장 높은 양성율을 보였고 다음이 지방국민학교, 도시국민학교 아동순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또 연령별로는 4~5세가 5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6~13세로 32.0~36.9%, 그리고 14세 이상에서는 양성율이 더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 박(朴)이 1965년에 서울과 농촌지역에서 실시한 요충검사에서는 고아원원아가 54.6%이었고 서울의 아동군에서는 48.5%와 24.8%를, 농촌아동에서는 28.2%의 감염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 후 1975년에 양(梁)도 도시의 국민학교

아동 949명과 농촌의 국민학교 아동 992명에 대하여 Graham씨법으로 1회 검사한바 전자에서 26.7%, 후자에서 32.9%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9.9%의 양성율을 보였는데 남자가 26.0%이고 여자가 33.8%로 남자보다 여자에서의 요충감염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그후 임(任)들(1986)도 학동에 대한 요충검사에서 도시지역 학동 326명에서 13.8%, 농촌지역의 학동 243명에서 55.6% 그리고 농촌지역의 학동 156명군에서 46.8%와 135명군에서 46.7%의 양성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1987년에 실시한 요충감염을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유치원원아와 국민학교아동 4,377명에 대하여 2회 검사를 한 결과 13.4%의 양성율을 보였는데 남자가 13.7%, 여자가 13.2%의 양성율을 나타내어 남녀간에 차이를 보지 못하였다.

집단별로는 유치원아가 13.7%, 국민

요충의 감염은 내이나 침구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진 총란이 쉽게 감염자충으로 성숙하여
감염성을 갖게 되므로 가족단위 또는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에서
쉽게 전파가 이루어 진다.

요충의 감염으로는 항문주위의 가려움이 주증상인데 감염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학업에 지장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학교 아동이 13.3%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6.7%, 2학년이 17.1%, 3학년이 15.1%, 4학년이 13.2%, 5학년이 9.8% 그리고 6학년이 7.7%로서 고학년이 될수록 감염율이 저하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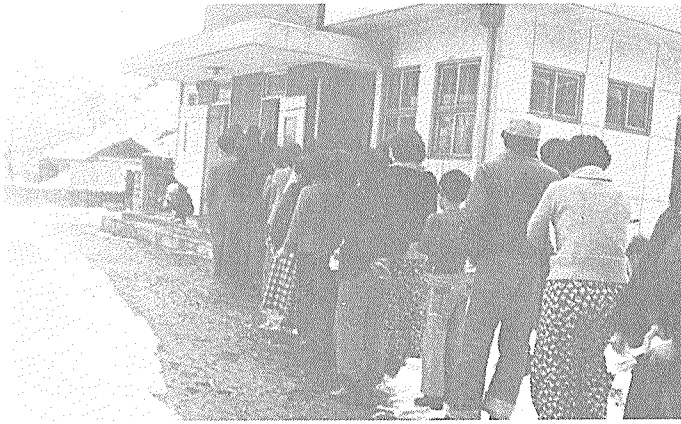
필자도 87년에 서울지역의 모국민학교 학동 936명과 농촌지역으로 전북의 모국민학교 학동 308명 그리고 서울 남지도의 10세미만의 어린이 92명에 대하여 요충검사를 실시하였다. 방법은 Graham씨법으로 오전중에 방문하여 스카치테이프를 항문 주위의 총란을 부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1회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의 국민학교 1~4학년 아동 936명에서는 12.2%가 양성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남자가 11.0%, 여자가 13.6%로서 여자의 감염율이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8.4%, 2학년이 11.6%, 3학년이 10.9%, 4학년이 8.2%로 고학년이 될수록 감염율이 저하되는 것을 보았다. 한편 농촌지역의 308명에서는 25.0%가 양성자로서 서울지역의 12.2%에 비하여 약 2배의 양성율을 보였다. 남녀

별로는 남자가 19.9%이었는데 비하여 여자는 30.3%로서 역시 여자쪽의 감염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1.5%인데 2학년은 40.8%, 3학년은 31.0%, 4학년은 15.8%, 5학년은 12.2% 그리고 6학년은 8.2%로 역시 고학년에서 감염율이 저하되었다. 이상의 여러조사성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요충은 다른 일반장내기생충에 비하여 아직도 상당히 고율의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충은 다른 토양매개기생충과는 달리 외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열대나 아열대지방은 물론이러니와 한대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전파가 가능한 기생충이다. 북극지방에서 살고있는 에스키모인들간에 요충감염이 높은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또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요충의 감염율이 높은 것은 아동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학교 아동에서 고학년이 되면 감염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바도 있으나 요충검사



◀우리나라가 일반기생충에서 해방 되려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충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생보건관계자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는 1회검사로는 충분한 신빙성을 얻을 수 없고 적어도 4회 이상의 반복검사가 필요하다. 즉 조사성적은 검사방법과 검사회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요충의 검사방법의 특수성때문에 성인에 대한 검사성적은 많지 않지만 필자가 1973년에 충북 옥천의 1개 부락에서 농민에 대해 요충검사를 하였는데 1회검사로 163명에서 55.2%의 양성율을 보였는데 그중 남자는 47.0%이었고 여자는 63.8%이었다. 1974년에 옥천의 다른 부락에서 같은 방법으로 135명의 농민에 대한 검사결과는 74.8%가 양성이었으며 남자가 64.5%, 여자가 83.6%이었다. 이같은 성적은 요충검사의 성격상 4~6회 반복하면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요충의 감염은 내이나 침구 그리고 방바닥에 떨어진 충란이 쉽게 감염자충으로 성숙하여 감염성을 갖게 되므로 가족단위 또는 학교와 같은 집단생활에서 쉽게 전파가 이루어 진다. 본충의 감

염으로는 항문주위의 가려움이 주증상인데 감염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학업에 지장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의 학생집단검사와 구충에서는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및 동양모양선충 등의 토양매개성 선충류에 주력하여 요충문제는 부각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회충 등의 감염율이 저하됨에 따라서 요충감염이 새로운 학생충에서의 구충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일찍 기생충 구충사업에 성공한 구미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도 요충감염은 아직도 해결이 안된 기생충으로서 학생보건상 숙제로 되고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반기생충에서 해방되려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요충에 대한 인식과 구충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생보건 관계자의 분발이 기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톨릭의대기생충학교수·의박〉